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such as 'EBSe 생활 영어', '크레명의 창의력 팜팡', '빠빠에 친구' with their respective tim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올림포스', '고교 영어독해-junior', '화물과 통계'.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무억역어 1급 시험대비강좌',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AT자격 시험대비강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5일(음 9월 24일 乙酉)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the zodiac signs 子 (Rat), 午 (Horse), 未 (Goat), 申 (Monkey), 酉 (Rooster), 戌 (Dog), 亥 (Pig).

“J에게’ 지금 들어도 몽클하죠”

‘가요계 거장’ 이선희, 콘서트·합창단 지휘 등 왕성한 활동



이선희(사진)는 누구나 자신있게 ‘국민가수’라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요계 거장 중 하나다.

1984년 ‘제5회 강변가요제’에서 ‘J에게’로 대상을 차지하며 데뷔한 그는 이듬해 1집 타이틀곡 ‘야! 날이여’를 시작으로 ‘갈바람’, ‘알고 싶어요’, ‘나 항상 그대를’, ‘한바탕 웃음으로’ 등을 히트시키며 1980년대 대표 디바로 자리 잡았다.

그는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으며 최초의 언니부대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1990년대에도 꾸준한 신곡을 발표했던 이선희는 2011년 미국 카네기홀의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움에서 단독 콘서트도 열었다. 작년에는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정규 15집 ‘세련디퍼티’(Srendipity)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선희는 작년 3월 앨범을 발매하자마자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어 1년여를 팬들 앞에서 보냈다. 올해에는 광복 70년 기념 프로그램 KBS ‘나는 대한민국’에 출연해 ‘1945 합창단’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제 겨우 스케줄이 뜰해졌네요. 작년에는 1년 내내 공연하느라, 올해에는 ‘나는 대한민국’을 준비하느라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2주를 앉았죠. 그리고 나니 좀 일상을 즐기겠더라고요. 설 때 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로 적어놨거든요. 지금은 그것들을 하러 돌아다니느라 바쁘네요. (웃음)”

발표했던 곡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을 물으니 자연스럽게 ‘J에게’라는 답이 나왔다.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항상 ‘J에게’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무덤덤하게 말하고 있지만 막상 ‘J에게’는 지금 들어도 몽클해요. 제 스스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노래거든요.”

이선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짧은 커트 머리에 안경, 바지정장이 그것이다. 항상 바지만 입는 그를 보며 팬들은 ‘이선희 다리엔 큰 허터가 있다’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는 데뷔 후 7~8년 동안 민낯으로 방송에 나가기도 했다.

하나의 스타일을 고집한 이유를 물으니 “그때는 그냥 그게 좋았다”라는 싱거운 반응이 돌아왔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 순간순간 부딪치는 게 많았어요. 화장도 하고, 안경도 벗으라고 하는데 그냥 싫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따라가야 하나?’라는 물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고집 반 반항심 반으로 계속 밀고 나가니 그날 제 스타일로 굳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 그 스타일이 싫어지더라고요. (웃음)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따르던 것 같아요.”

이선희의 공연장에 등장하면 관객만 찾을 것으로 생각하면 상당한 오산이다. 그의 콘서트장에는 늘 20~30대 관객들이 북적인다. 특히 영화 ‘왕의 남자’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수록된 ‘인연’이란 노래가 큰 히트를 치면서 그는 젊은 세대에 이름을 알렸다. 이선희가 손 편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쓴 편지를 보내는 소녀팬들도 수도룩하다.

“요즘 젊은 팬들의 의사 표현은 정말 통통 튀어요. 공연 후기 게시판도 꼼꼼히 살펴보는 편인데 반응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웃음) 저를 언니라고 부르는 중학생 팬이 하나 있는데 자기 엄마도 저를 언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엄마도 언니 팬인데 족보가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온 적도 있어요.”

이선희는 후배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거장 중 하나다. 그런 만큼 요즘 TV를 틀면 이선희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거나 모창하는 가수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정작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했다.

“요즘 후배들은 정말 음악을 잘해요. 예전에는 좋은 걸 표현할 줄도 몰랐어요. 또 음악 하시는 분 상당수가 쫓아가는 음악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음악으로 잘 표현하는 세대가 됐어요. 제 노래를 후배들이 불러주면 너무 좋죠. 그걸 듣고 ‘저런 방향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부른 방식 그대로 부르는 후배를 보면 잘하고는 떠나서 좀 아쉬워요.”

연남뉴스

아이유, 브리트니 스피어스 곡 무단 샘플링 논란

샘플 출처 불분명... 확인 절차 진행 중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2)의 새 앨범 수록곡이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곡을 무단 샘플링(Sampling)했다는 논란이 휩싸였다.

최근 누리꾼은 아이유의 미니앨범 ‘챗셔’(CHAT-SHIRE)의 보너스 트랙 ‘트렌티 쓰리’(Twenty three)에 스피어스의 2007년 곡 ‘김미 모어’(Gimme more)의 일부가 무단 사용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트렌티 쓰리’ 일부에서 ‘김미 모어’에 담긴 코러스와 추임새 등이 똑같이 들린다는 주장이다.

샘플링은 기존 팝과 클래식 음반의 연주 음원을 그대로 따서 쓰는 기법으로, 출시된 음원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사 또는 음반유통사의 저작권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샘플 음원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이 해결된 샘플 CD를 구매하거나 샘플 음원 판매 유료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트리는 ‘트렌티 쓰리’의 작곡가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부분은 편곡 과정에서 작곡가가



구입해 보유하고 있던 보이스 샘플 중 하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엔트리는 보이스 샘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사실 확인을 하고자 스피어스 소속사에 연락을 취해 해당 보이스 샘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데로 전제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피어스의 음반유통사인 소니뮤직은 “아이유의 소속사로 부터 해당 보이스 샘플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아 미국 본사에 문의해 둔 상태”라며 “스피어스의 목소리가 들어간 음원이 그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진,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 스페셜

7~8일 KBS 1TV 특집 방영

KBS 1TV는 오는 7일 밤 10시50분 특집 ‘2015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갈라 콘서트 조성진 스페셜’을 방송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한국인 최초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수한 조성진이 폴란드 바르샤바 콘서트홀에서 콩쿠르 1~5위 수상자들과 함께 펼친 갈라 콘서트 중 조성진만의 무대를 편집해 방송한다.

또한 KBS 1TV는 8일 오후 2시10분 ‘특집 슈퍼클래식’에서 조성진이 이번 콩쿠르 경연 과정에서 연주한 모습을 보여준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쇼팽 콩쿠르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160여명의 참가자들이 본선 1차, 2차, 3차와 파이널 무대까지 총 4번의 경합을 벌였다.

‘특집 슈퍼클래식’에서는 조성진이 본선 1차에서 연주한 쇼팽 녹턴 Op.48 No.1과 본선 2차에서 연주한 쇼팽 왈츠

Op.34 No.3, 쇼팽 폴로네이즈 ‘영웅’, 본선 3차에서 연주한 쇼팽 프렐류드 전국 24개와 쇼팽 스케르초 2번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파이널 무대에서 연주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까지,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전 과정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연남뉴스

